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주택 / 아파트 / 상가 / 사업체 전문

REALTOR **데이빗 전**

**(714)309-2355**

**이광연 공인회계사**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상속계획(Estate plan)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1, G.G, CA 92844



**[좋은 소식]**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어느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란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되물었다.  
“아버지, 전에 제 성적표에 F 학점이 없으면 100달러 주기로 한 것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이번 학기에는 F학점이 없나보구나!”  
아버지는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보며 말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그 돈 아버지 쓰세요.”

**[헌혈을 못하는 이유]**  
바람둥이: 어젯밤에 쌍코피가 나서 피가 부족해요!  
구두쇠: 난 찢려도 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골초: 니코틴에 찢든 내 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노인: 내 피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일병의 생각]**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이 일병에게 국기 게양대의 높이를 재 오라고 했다. 명령을 받은 졸병은 줄자를 가지고 국기 게양대 위에 올라가려고 끙끙거렸다. 그때 지나가던 병장이 궁금해 물었다.

“야! 위험하게 거기는 왜 올라가냐?”  
“소대장님이 게양대 높이를 재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야! 힘들게 왜 올라가! 게양대 밑에 있는 너트를 풀어서 눕혀 놓고 길이를 재면 되잖아?”

그러자 일병이 힘든데 말 시킨다는 듯 인상쓰며 대답했다.  
“소대장님이 원하는 건 높이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집에 가기 위해]**  
부산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모처럼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다니러 왔다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됐다.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오른 할머니는 여기저기 둘러보다 넓고 좋은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 매우 만족해 하고 있었다.  
그런 할머니를 발견한 스투어디스는 할머니를 할머니의 자리인 이코노미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할머니, 여기는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예요. 어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무슨 소리야? 빈자리는 먼저 맡은 사람이 입잔데.”  
할머니는 좀처럼 이코노미석을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할머니 귀에 대로 무슨 말인가 하니 할머니는 놀란 듯이 자신의 자리로 빠르게 옮겼다.

스튜어디스는 남자가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 물었다.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  
88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TV 앞에 앉아 종교 방송을 보고 있다.  
그 프로에서 목사는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어디가 아픈지 묻고 치유를 원하는 부위에 손을 갖다 대라고 했다.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연로한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손을 갖다 댄 데는 눈과 가슴이었다. 그 후 목사가 말했다.

“자, 맥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도 치유를 원하는 신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자 심장이 많이 좋지 않은 할머니는 손을 심장 위에 갖다 댔다. 그리고 80대의 할아버지는 두 손을 사타구니에 갖다 댔다. 그러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말했다.

“아픈 데를 고쳐준다고 했지 죽은 걸 살려낸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Candice K. Kim (김경아)**  
**714-373-6883**  
764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

CA Insurance Agent #: 0B30329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